

# 암릿 벨라의 거룩한 백조들과 만사로바 (호수).

오늘 바바는 어디서나 거룩하고 영적인 백조들의 집회를 보고 있다. 거룩한 백조들 모두 지식의 보석들을 끊임없이 훈습하고 남들도 훈습하도록 고취한다. 저 (육신의) 백조들의 음식이 더없이 귀중한 진주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스러운 백조인 너희들의 지각을 위한 음식은 지식의 보석들이다. 너희들은 암릿 벨라에 밥다다와 나누는 진심의 대화와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지식의 보석들을 훈습한다. 너희는 모든 힘들도 역시 훈습한다. 같은 방식으로, 너희는 되새기는 힘을 통해서 이제까지 훈습해온 보석들과 힘들을 너희의 실생활에 쓰고, 남들도 그렇게 하도록 고취한다.

암릿 벨라 때 만남을 축하하는 힘, 훈습하는 (채택하는) 힘, 그리고 날마다 아버지에게서 순수한 생각이라는 특별한 영감을 포착하는 힘 등이 극히 중요하며 필수적이다. 암릿 벨라에 너희들은 각자 훈습하는 힘을 통해 다르나의 화신이 된다. 암릿 벨라 때에는 두 가지 특별한 이미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다르나의 화신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험의 화신이 되는 것이다. 특히 암릿 벨라 때 밥다다는 자녀들을 위한 공여자이며, 만남을 축하하기 위해 모든 관계로서 사랑의 형태를 취하고, 또 모든 보물로 자녀들의 앞자락을 채워주는 모든 보물을 가진 순진한 주님의 형태도 역시 취한다. 그때에 너희는 뭐든 원하는 대로 아버지에게 할 수 있다. 그를 설득하거나, 그를 구슬리거나, 그와 어떤 관계를 실현하기를 원하든, 또는 쉬운 방법을 경험하기를 원하든, 너희는 그 모든 것을 쉽사리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너희는 성취의 보물들을 쉽게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주는 공여자도 쉽게 얻을 수 있다. 모든 미덕과 힘의 광산이 자녀들에게 개방된다. 암릿 벨라 때 얻는 1초의 경험은 그날 낮과 밤 내내 모든 성취의 형태들을 경험하는 토대가 된다. 밥다다는 그때 모든 자녀를 위해 그들 각자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얘기하고, 불만을 들어주고, 그들의 약점을 끝내주고, 혹시 그들이 죄를 지은 경우엔 온갖 유형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줄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은 공식적인 시간이 아니다. 그는 보물들의 순진한 주님의 형태로 있다. 그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녀인 너희들 중 일부는 기회를 잡아서 이용하는 반면, 나머지는 그저 남들이 기회를 잡는 것을 쳐다보기만 한다. 어째서 그러하냐? 그들도 원하지만, 왜 장애가 중간에 끼여드는지, 그 이유를 너희가 아느냐?

사실 마야도 매우 영리하다. 마야는 특히 그 시간에 너희를 아버지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온다. 그녀는 온갖 변명의 게임으로 너희를 구슬린다. 도박사가 카드를 나눠주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야도 역시 부주의함, 게으름, 낭비적인 생각 등 갖가지 유형의 핑계로 너희를 꾀인다. 그러면 너희는 황금의 기회를 잃는다. 뿐 아니라 너희가 그토록 귀중한 시간을 잃기 때문에, 즉 쉽게 성취할 수 있는 호기를 제 스스로에게서 박탈한 탓에 하루 전체의 기초가 부실해진다. 하루 내내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하루의 시작 탓에, 즉 기초를 놓는 때가 약한 탓에 너희는 더 많이 애써야 하고 따라서 성취를 더 적게 받는다. 성취를 덜 받기 때문에 너희는 두 가지 유형의 단계를 경험한다. 첫째, 전진하는 동안에 피로를 경험하고, 둘째로는 낙담한다. 그럴 때 너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목적지에 언제쯤이나 도착하게 될지 모르겠네. 때가 멀까, 가까울까? 우리가 황금시대의 세계에 갈 수 있게 계시가 언제 일어나려나? 가정의 이 굴레를 내가 얼마나 더 오래 갖고 있어야 될까?” 너희는 현재의 성취들은 제쳐놓고 미래를 보기 시작한다.

현재의 성취들의 목록을 변함없이 너희 앞에 놔둬라, 그러면 “이 일이 언제나 일어날까?” 라는 의문이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로 바뀔 것이다. 너희는 낙담하지 않고 행복한 마음이 될 것이다. 현재의 때에서 물러서지 마라. 변명하는 마야의 게임들을 알아차려라. 너희에게 구실들을 줌으로써 마야는 너희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를 구슬릴 수 없다, 즉 너희는 쉬운 방법을 채택할 수가 없다. 뭔가를 축복의 형태로 성취하지 못하고, 대신 너희는 뭔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암릿 벨라의 때가 쉬운 성취를 위한 때임을 인식하고 유익을 얻어라. 보물창고가 열리는 이 보상으로 너희의 앞자락을 채워라. 암릿 벨라 때 행운의 공여자와 축복의 공여자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너희의 행운의 선을 그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때에는 그가 순진한 주님이신 이지만 그는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을 토대로 너희는 그가 그려주는 고귀한 선을 받을 수 있다. 너희가 뭘 원하든, 몇 번의 생을 원하든, 여덟 보석의 염주에 들어가기 원하든, 108 보석의 염주에 들어가기 원하든, 밥다다는 너희에게 이미 공개 제안을 했다. 그 외에 너희가 무엇을 더 원하느냐?

주인이 되어 너희의 권리를 차지해라. 어떤 보물에도 자물쇠나 열쇠가 없다. 열쇠에는 아무 노력도 들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 내내 너희는 노력이라는 열쇠를 써야 한다. 그럴 때는 그저, “내가 무엇이든, 내가 어떠한든, 나는 당신에게 속합니다,” 라는 생각만 해라. 마야의 게임들을 극복하고 바바에게 와서 옆에 앉아라. 마야의 게임들은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보조 세트에 불과하다. 그것들을 봐도 멈춰 서지 말아야 한다. 그저 바바에게로 와서 옆에 앉기만 해라. 너희의 생각과 지각을 내맡겨라, 즉 너희의 마음과 지각을 아버지에게 맡겨라.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아느냐? 그가 너희에게 준 것을 아버지에게 돌려주는 일이 어째서 어려워지느냐? 때때로 너희는 그것을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또 다른 때는 “제 것입니다” 라 한다. 너희는 “나의 것”과 “당신의 것”의 회전에 갇힌다. 암릿 벨라에 눈을 뜨자마자 너희는 뛰어올라 1초 만에 아버지 옆에 앉는다. 이 동반으로 인해 너희는 아버지의 보물들을 너희 자신의 보물로 경험할 텐데, 그것은 지식을 토대로 하지 않으며, 성취가 그 기반이다. 모든 권리의 옥좌에 앉아 있으면서 너희는 모든 권리를 다 가진 자로 너희 자신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신이며 친구로서, 아버지는 너희에게 모든 권리의 옥좌를 권한다. 일어나서 옥좌에 앉아라. 모든 권리의 옥좌에 잠깐만 앉아 있어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될 수 있다. 제한된 왕들이 잠시 옥좌에 앉을 권리를 가지는 것을 토대로 왕국을 차지할 수 없느냐? 지금 이 절호의 기회에 무한한 옥좌에 앉는 자들은 황금시대의 단계를 쉽게 만들 수 있고, 미래 황금시대의 세계에서 고귀한 지위를 쉽게 차지할 수 있다. 쉬운 노력을 할 때와 그렇게 하는 쉬운 방법을 이해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왜 쉬운 것을 제쳐두고 어려운 일을 하려고 애쓰느냐? 자 이제는 너희가 쉬운 노력가가 되려느냐 어려운 노력가가 되겠느냐? 너희가 아버지를 쉽게 찾았으니, 따르는 그 길이 어떻게 어려울 수 있느냐? 쉬운 노력가가 되어라. 어려운 것의 이름과 흔적은 모두 끝내라, 그러면 너희가 세상의 어려움들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권리를 다 갖고 옥좌에 앉아 있으면서 마야의 게임에 합격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아버지의 비밀들을 이해하는 자들에게, 노력을 사랑으로 변형시키는 자들에게, 낙담하지 않고 마음을 늘 행복하게 유지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행복한 마음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자들에게, 변함없이 아버지와 함께 머무는 자들에게, 가장 고결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아비약트 밥다다가 그룹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심.**

**1. 너희 마음을 통해서 봉사하는 쉬운 방법은 끊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지각에 믿음을 지님으로써 한결같이 승리하는 자들은 그 믿음을 토대로 계속 분위기를 정화시킬 수 있다. 그들은 마음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온 사방의 영혼들이 지각에 믿음을 가진 영혼을 보면 그가 이미 뭔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무리 교만하고 심지어 이 지식을 듣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뭔가 가치 있는 것임을 마음속으로는 틀림없이 이해한다. 처음부터 믿음이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이 봉사가 계속된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으로 하는 진정한 봉사다.

**2. 마야에게서 안전하게 머무는 길은 주의라는 경비들을 계속 깨어 있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 모두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자로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느냐? 자아각성의 원반을 끊임없이 돌리고 있는 자들은 마야의 그 어떤 회전에서도 한결같이 자유롭다. 자아각성의 원반 하나가 낭비적인 모든 회전들을 끝낸다. 그것은 마야를 쫓아버린다.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자들 앞에서는 마야가 머물러 있지 못한다. 한결같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자들은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다. 너희들은 한결같이 완전하며 충만한 상태로 머물 수 있느냐? 마야는 너희를 비우려고 시도하지만 너희가 한결같이 조심하며 깨어 있으면서 불을 밝히면 마야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주의라는 경비병이 끊임없이 기민한 상태로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너희는 한결같이 안전할 것이다. 과거에 너희가 끊이지 않고 켜져 있는 빛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도 사원에서 빛으로 된 너희의 기념물들을 항시 밝혀둔다. 그들은 등잔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 불빛을 끊임없이 밝혀두는 유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너희들 모두 합류 시대에 살아 있는 형태로 불빛이 점화되었고, 따라서 이 기념물이 지속되어왔다. 만일 등불이 나가면 그들은 이를 불길한 징조라고 여긴다. 그러니 살아 있는 형태로 너희들 모두 무엇이냐? 한결같이 불

켜진 등불들이다. 조금이라도 손상된 것은 숭배될 가치가 없다.

### 3. 아버지가 이제까지 너희에게 준 칭송들을 기억함으로써 강력한 단계를 경험해라.

너희들의 행운에 대한 모든 칭송의 노래를 너희는 끊임없이 부르느냐? 어떤 이가 세상의 평범한 노래를 불러도 대단한 행복이 경험된다. 신봉의 길에서도 키탄(찬미가, 찬송가)을 부를 때 사람들은 매우 행복해한다. 그러니 너희들 역시 모두 아버지가 너희에게 준 칭송의 노래들을 계속 끊임없이 불러야 마땅하다. 전에는 우리가 무엇이었고, 아버지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그걸 기억하고 한결같이 명량한 상태에 머물러라. 이를 기억하는 데 힘이 들어 있으니, 너희를 강력하게 만든 분이 아버지 아니었느냐? 꿈에조차 그렇게 되기를 원해본 적조차 없었던 것을 너희는 육신의 형태로 경험하고 있으며, 그래서 밥다다는 자녀인 너희들 모두가 행운의 별이라고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행운의 별들이 아니냐?

끊임없이 광채를 발하는 자들은 별이라고 불린다. 너희가 아버지에게 이제껏 받은 힘들과 지식의 보물들로 계속 빛나라. 너희들은 그러하냐? 너희들은 구름 속에 숨겨진 자들이 아니지? 너희들은 각자의 광채로 세상을 끊임없이 밝혀주는 자들이 맞지? 너희는 기꺼이 낡은 세상에서 물러났다. 너희는 더 이상 낡은 세계의 주민이 아니고, 합류시대의 주민이다. 그러니 너희가 낡은 세상에서 물러났느냐,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어찌 생각하느냐?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갈 때 너희가 낡은 세상에서 뭔가 낡은 물건을 사가지는 않을 테지? 오늘날에는 심지어 국경에 서 있는 자들마저 더러 의도적으로 적국에 간다. 너희는 경계선을 넘어 낡은 세계로 가지 않을 테지? 새 세계가 너희들 앞에 서 있으니 너희는 낡은 세상에서 물러나야 한다. 생각으로라도 낡은 세상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리로 가면 뒷에 걸릴 것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너희가 합류시대에 있다고 여겨라. 합류시대에는 너희가 아버지와 유산을 기억할 것이다.

노력에 있어 너희 자신의 발전과 봉사의 발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양쪽 모두를 위해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지금은 무슨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느냐? (우자인에서 열리는 쿵바 멜라 때 영적인 박람회를 열려고 합니다.) 너희는 대단한 화려함으로 멜라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좋다. 그러나 한 가지를 늘 각별히 주의해라. 멜라의 분위기를 대단히 평화롭게 만들어서, 혼돈과 동요의 태도로 온 사람들조차 자기들이 완전히 다른 장소에 왔다고 느낄 정도가 되게 해라. 온 사방에 소음이 심할지라도 그들이 너희에게서 평화의 장소(산티 쿼드)에 도달했다는 경험을 하게 해줘라. 밖에서 경비를 서는 자들까지도 평화의 축복을 주는 공여자로서 서 있게 해라. 너희들의 평화의 파동이 그들을 평화롭게 만들게 해라. 이를 통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간 것은 단 2분 뿐이었는데도 아주 좋은 평화의 경험을 갖고 돌아왔다는 소리가 멜라 전체에 퍼질 것이다. 수립의 초창기에 왔던 자들은 “음”이라는 챗팅에서 그것이 평화의 장소임을 경험하곤 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 멜라에서 평화를 경험하게 해라. 멜라에 오는 자들의 기분 상태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 멜라들은 시장 같아서 비록 그들이 평화롭지 않은 상태로 오더라도 그들에게 평화의 경험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그 경험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랑으로 모든 이를 초대해라, 그러면 너희의 사랑을 보며 누구나 다 행복해질 것이다. 남들이야 어떻게 말하든 개의치 말고 너희가 사랑을 가지고 평화롭게 말하면 그것에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이따금씩 무대에 등단하는 자들은 이를 보며 마음속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은 모든 이가 눈을 약간 아래로 깔긴 했지만 아직은 머리를 숙여 절하지는 않았다. 결국은 모든 이가 절을 할 것이다. 모든 이가 절을 한다 함은 승리가 있으리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엄청난 변혁이 일어난 후에 평화가 올 것이다. 첫 번째 동작인 절을 그들이 아직 안 하고 있지만, 마침내 그들은 발치에서 머리 숙여 절을 할 것이다.

### 4. 자비로운 아버지의 자비로운 자녀들의 의무는 모든 이에게 그들의 목적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이가 거지처럼 빈곤한 삶을 겪었고 이제는 모든 보물들로 가득해졌다. 모든 보물들로 가득해진 자녀들이 남들을 보면 그들은 남들도 역시 그들의 목적지를 찾게 해줘서 그들 역시 유익을 얻게 해야겠다는 자비심을 느낄 것이다. 접촉하게 되는 자 누구에게든 너희는 반드시 아버지를 소개해줘야 한

다. 누가 너희 집에 오면 너희는 그들에게 반드시 마실 물을 권한다. 그들이 아무 것도 받지 못한 채 가버린다면 너희 마음이 서운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와 접촉하게 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소개라는 물을 권해라. 너희가 지식을 약간 들려준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는 것과 같다. 너희가 만일 그들에게 7일 코스를 가르쳐 준다면 그것은 브라마 보전을 주는 셈이다. 너희는 공여자의 자녀들이니 반드시 뭔가를 줘야 한다. 앗차.

**축 복:** 끊임없이 왕관을 쓰고서 옥좌에 앉아 있는, 한결같고 자연스러운 요기가 되어라.

지금 현재 자녀들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왕관과 옥좌를 받았다. 현재의 때의 왕관과 옥좌는 너희가 여러 생 동안 왕관과 옥좌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 만일 너희가 세계 유익을 위한 책임의 왕관을 끊임없이 쓰고서 밥다다의 가슴의 옥좌에 늘 앉아 있다면 너희는 한결같고 자연스러운 요기가 될 것이다. 그런 영혼들은 어떤 것을 위해서도 노력할 필요가 없는데, 첫째 가까운 관계가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무한한 성취가 있기 때문이다. 성취가 있는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기억이 된다.

**슬로건:** 순수한 지각으로 너희의 계획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라, 그것에 성공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 음 산티 O M S H A N T I \*\*\*